

膿胸의 臨床的 考察*

-220례 보고-

나 국 주** · 안 병 희** · 오 봉 석** · 김 상 형** · 이 동 준**

-Abstract-

Clinical Evaluation of Empyema Thoracis

-220 cases -

K, J. Nah, M.D.", B. H. Ahn, M.D.", B. S. Oh, M.D.", S. H, Kim, M.D.", D. J. Lee, M.D"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1979 to December 1988, 220 patients with empyema thoracis were treated in the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Hospital. There were 167 males(75.9%) and 53 females(24.1%) ranging from 18 days to 76 years of age. Occurrence ratio of left and right empyema was 1 : 1.9. The underlying pathologic lesions of empyema were pneumonia(30.9%), pulmonary tuberculosis(22.7%), chest trauma(8.6%)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 bacteriologic study, staphylococcus, pseudomonas and streptococcus accounted for 26.4%, 11.8% and 9% respectively, and 25% were not identified. Surgical treatment modalities were thoracentesis(10 patients, 4.5%), closed thoracostomy(132, 60%), closed rib resection drainage(4.2, 6%), modified Eloesser's operation(37, 16.8%), decortication(27, 12.3%), decortication with pulmonary resection(6, 2.7%), thoracoplasty(2, 0.9%), muscle flap closure(1, 0.5%), and staged pneumonectomy(1, 0.5%). The mortality rate was 2.3% and the complications were sepsis(9 patients), acute renal failure(4), and paralytic ileus(3).

I. 序 論

나 합병증이 발생한 膿胸에서는 외과적 치료에 어려움이 많고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膿胸은 胸膜腔 내의 화농성 변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急性과 慢性膿胸으로 대별되고 외과적 치료에도 차이가 있는데 急性膿胸에서는 膿胸의 원인제거 및 排膿에 의한 膿胸腔 폐쇄를 목적으로 한 여러가지 치료 방법이 보고되어 있고, 慢性膿胸에서는 排膿후 비후된 胸膜의 剥皮 및 死腔의 제거를 근간으로 한 여러가지 치료방법이 보고되어 있다.

본 교실에서는 膿胸의 진행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하여 1979년 1월부터 1988년 12월 사이에 220례의 膿胸환자를 치료하였기에 이에 대한 성적을 문헌고찰

膿胸은 胸膜腔의 감염으로 胸腔내에 화농성 액체가 저류된 상태로 문화, 경제의 발전 및 항생제의 발달로 세균감염에 의한 膿胸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1,2)} 혼합 및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의 감염에 의한 膿胸이

*본 논문은 1989년도 제21차 추계 흉부외과학회에서 구연되었음.

**전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Hospi-
tal.

1990년 10월 24일 접수

과 함께 보고 하고자 한다.

II. 對象 및 方法

1979년 1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10년간 急性 및 慢性膿胸으로 전남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외과적 치료를 받았던 220례를 1세 이하의 유아군과 1세에서 15세 사이의 소아군 및 16세 이상의 성인군으로 나누어 관찰하였으며, 환자의 진단 및 치료는 환자의 기왕력상에 膿胸이 의심되는 환자는 흉부단순정면 및 측면사진을 촬영한 후 胸部穿刺를 시행하여 세균 및 결핵균 배양을 시행하고 cell & D/C, protein, LDH, sugar, Cl⁻, pH, 침전율 등의 검사를 말긴 후 세균감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결핵균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생제와 항결핵제를 함께 투여하고, 閉鎖式 胸管挿管術 시행후 急性膿胸으로 진단된 경우엔 항생제 투여 및 胸管을 유지하면서 일정간격으로 흉부단순사진을 촬영하여 局限性 脓胸이 발생한 경우엔 rib resectional drainage를 시행하였고, 조기에 중상의 호전이 없거나 침전율이 높은 排膿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생리수에 항생제나 potassium iodide(0.5%)를 첨가하여 胸膜腔세척을 시행하였으며

死腔이 적고 排膿이 잘되는 경우엔 胸管을 서서히 빼면서 관찰하였고 死腔이 크고 排膿이 잘되지 않아 慢性膿胸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胸膜剥皮術이나 modified Eloesser procedure를 시행하였다. 慢性膿胸에서는 개방성 排膿, 胸膜腔세척, 胸膜剥皮術, 胸廓成形術 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胸膜剥皮術시 폐실질의 파괴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肺切除術을 첨가 시행하였다.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에서는 rib resectional drainage나 modified Eloesser procedure를 먼저 시행하였고 전신상태가 양호한 환자에서는 胸膜剥皮術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으나, 6주 이상 死腔이 남는 경우엔 胸膜剥皮術, modified Eloesser procedure나 胸廓成形술을 시행하였다(Fig. 1).

III. 成 績

1. 發生頻度

膿胸의 발생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여령 분포는 생후 18일부터 최고 76세까지였고 1세 미만의 유아가 22례(10.0%), 1세부터 15세 사이의 소아가 42례(19.1%), 16세 이상의 성인이 156례(70.9%)로 성인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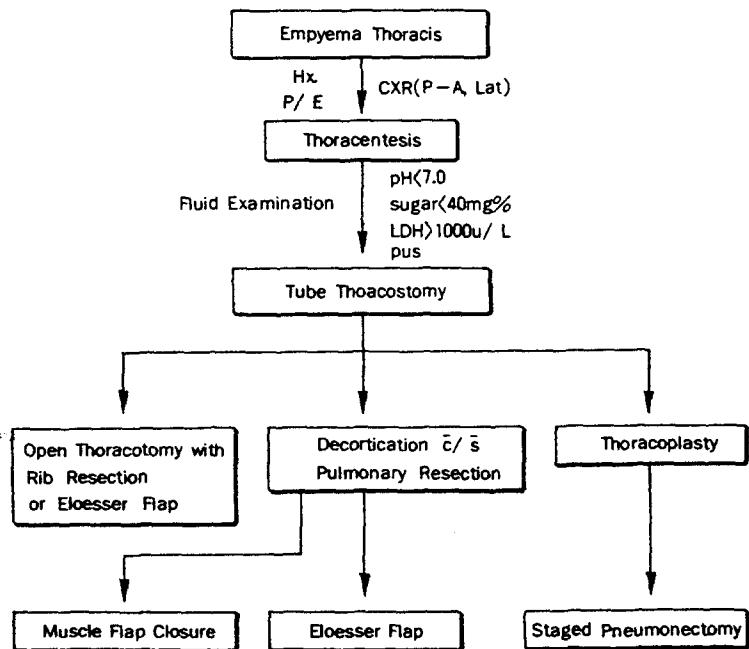


Fig. 1. Therapeutic Algorithm of Empyema Thoracis

Table 1. Annual Number of Treated Patients.

| | Infant(<1y) | Child(1-15y) | Adult | Total |
|------|-------------|--------------|------------|-----------|
| 1979 | - | 7 | 26 | 33(15.0%) |
| 1980 | 8 | 7 | 13 | 28(12.7%) |
| 1981 | 6 | 7 | 21 | 34(15.5%) |
| 1982 | 4 | 7 | 18 | 29(13.2%) |
| 1983 | 2 | 2 | 13 | 17(7.7%) |
| 1984 | 1 | 6 | 12 | 19(8.6%) |
| 1985 | - | 1 | 10 | 11(5.0%) |
| 1986 | 1 | 2 | 14 | 17(7.7%) |
| 1987 | - | 1 | 14 | 15(6.8%) |
| 1988 | - | 2 | 13 | 15(6.8%) |
| | 22(10.0%) | 42(19.1%) | 156(70.9%) | 220 |

Table 2. Sex Distribution.

| Sex | Infant | Child | Adult | Total |
|--------|-----------|-----------|------------|------------|
| Male | 11(50.0%) | 27(64.3%) | 129(82.7%) | 167(75.9%) |
| Female | 11(50.0%) | 15(35.7%) | 27(17.3%) | 53(24.1%) |
| | 22 | 42 | 156 | 220 |

성별 발생빈도를 보면 유아군에서는 1:1, 소아군에서는 1.8:1, 성인군에서는 4.9:1로 전체적으로는 3:1의 남녀 비를 보였는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남자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다(Table 2).

좌우 농흉의 발생빈도는 우측에서 약2배 정도 높았으나 연령, 성별, 胸腔의 진행정도 및 임상적 소견과의 상관 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고 양측에 胸腔이 발생하는 경우는 6례(2.7%)였다(Table 3).

2. 病歴

병력은 1개월 이내가 63.2%로 대부분이었고, 유아 및 소아 군의 胸腔은 그 원인과 경과가 대부분 急性이며 단 3례에서만 만성화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성인군에서는 병력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3.4%였다(Table 4).

3. 原因

胸腔의 원인은 병력, 臨床소견, 흉부단순사진, 胸腔穿刺液 소견, 5회 이상의 객담 도말검사, 胸水液 배양 및 수술후 병리조직검사등으로 규명하였으며 소아군에서는 폐염이 64례 중 46례(71.9%)로써 가장 빈번한 胸腔의 원인이었고 그외 폐결핵, 흉부외상후 합병증에 의한 胸腔 발생 등이었으나 성인군에서는 폐결

Table 3. Location of Empyema.

| Location | Infant | Child | Adult | Total |
|----------|-----------|-----------|-----------|------------|
| Rt. | 15(68.2%) | 27(64.3%) | 95(60.9%) | 137(62.3%) |
| Lt. | 7(31.8%) | 13(30.9%) | 57(36.5%) | 77(35.0%) |
| Both | - | 2(4.8%) | 4(2.6%) | 6(2.7%) |

Table 4. Duration of Illness prior to Treatment.

| Duration | Infant | Child | Adult | Total |
|----------|-----------|-----------|-----------|-----------|
| <1w | 15(68.6%) | 20(47.6%) | 33(21.2%) | 68(30.9%) |
| 1w-1m | 6(27.3%) | 14(33.3%) | 51(32.9%) | 71(32.3%) |
| 1m-3m | 1(4.5%) | 5(11.9%) | 35(22.4%) | 41(18.6%) |
| 3m-1y | - | 2(4.8%) | 16(10.3%) | 18(8.2%) |
| 1y< | - | 1(2.4%) | 21(13.4%) | 22(10.0%) |

Table 5. Underlying Pathologic Lesions.

| Lesion | Infant & Child | Adult | Total |
|-------------------------|----------------|-----------|-----------|
| Pneumonia | 46(71.9%) | 25(16.0%) | 71(32.2%) |
| Pul. Tuberculosis | 7(10.9%) | 43(27.6%) | 50(22.7%) |
| Post-Trauma | 2(3.1%) | 17(10.9%) | 19(8.6%) |
| Spontan. pneumothorax | - | 13(8.3%) | 13(5.9%) |
| Liver or subphrenic ab. | 1 | 8(5.1%) | 9 |
| Lung abscess | 1 | 7 | 8 |
| Malignancy | 1 | 7 | 8 |
| Postoperative | - | 7 | 7 |
| Esophageal perforation | - | 6 | 6 |
| Paragonimiasis | 1 | 4 | 5 |
| Osteomyelitis | - | 1 | 1 |
| Unknown | 5(7.8%) | 18(11.5%) | 23(10.5%) |

핵이 156례 중 43례(27.6%)로 가장 빈번한 원인이었고 그 다음이 폐염 25례(16.0%), 흉부외상 19례(10.9%) 순이었다. 또 肺切除 후 합병증에 기인한 胸膜炎도 7례가 있었다(Table 5).

4. 臨床 症狀

臨床 증상은 호흡곤란(24.5%), 흉통(21.8%), 발열(20.9%), 기침 및 객담(20.0%) 등의 순이었으나, 유소아군에서는 발열(40.6%), 기침 및 객담(25%)이, 성인군에서는 호흡곤란(27.6%), 흉통(27.6%), 기침 및 객담 등이 주 증상으로 연령에 따라 臨床증상에 차이가 있었다(Table 6).

5. 原 因 菌

원인균 검출을 위해 전례에서 胸膜腔液 및 객담을 채취하여 도말염색과 균 배양을 시행하였는데 165례

(75%)에서는 원인균이 검출되었고 55례(25%)에서는 검출할 수 없었다. 원인균은 포도상 구균이 58례(26.3%)로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녹농균 26례(11%) 연쇄상 구균 20례(9%) 순이었다. 유소아군에서는 포도상 구균이 34례(15%)로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었으나 성인군에서는 녹농균 및 그람 음성균이 빈번하게 검출되었다(76례, 34%). 2개 이상의 복합 감염이 29례에서 발생하였는데(소아 3, 성인 26) 이차감염에 의한 것과 그람 음성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엔 대개 치유속도가 늦고, 치료 자체도 어려웠다(Table 7).

6. 治療 및 成績

유소아환자는 총 64명으로 모든 경우에서 胸膜穿刺를 하였다. 그중 9명의 환자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수회의 穿刺를 실시하였는데 4명에서는 호전되었고 실패

Table 6. Symptoms and Signs on Admission.

| Sx. & Signs | Infant & Child | Adult | Total |
|----------------------|----------------|-----------|-----------|
| Dyspnea | 11(17.2%) | 43(27.6%) | 54(24.5%) |
| Chest pain | 5(7.8%) | 43(27.6%) | 48(21.8%) |
| Fever | 26(40.6%) | 20(12.8%) | 46(20.9%) |
| Cough & sputum | 16(25.0%) | 28(17.9%) | 44(20.0%) |
| Pus discharge | 1 | 12(7.7%) | 13(5.9%) |
| Abdominal distension | 3 | 4(2.6%) | 7(3.2%) |
| General weakness | 1 | 1 | 2 |
| Hemoptysis | — | 1 | 1(0.5%) |
| Asymptomatic | 1 | 4(2.6%) | 5(2.3%) |

Table 7. Bacteria identified in Empyema Fluid.

| Organism | Infant & Child | Adult | Total |
|----------------------------|----------------|-------|-------|
| G(+) organism | | | |
| Staphylococcus | 34 | 24 | 58 |
| Streptococcus | 4 | 16 | 20 |
| Pneumococcus | 3 | 8 | 11 |
| G(-) organism | | | |
| Pseudomonas | 3 | 23 | 26 |
| Klebsiella | — | 12 | 12 |
| Serratia | 1 | 11 | 12 |
| E. Coli | 1 | 10 | 11 |
| Enterobacter | 1 | 10 | 11 |
| Proteus | 1 | 6 | 7 |
| Acinetobacter | 3 | 4 | 7 |
| Mycobacterium tuberculosis | 2 | 13 | 15 |
| Paragonimus westermani | — | 5 | 5 |
| Not identified | 13 | 42 | 55 |

한 5명을 포함한 60명의 환아에서 閉鎖式 胸管挿管術을 시행하여 45명(70%)에서 치유되었고 8명(12%)에서는開放性 排膿術을, 3명(4%)에서는 늑골 절제에 의한 排膿을 시행하였다. 위 처치로 실패한 4명에선 局限性 膽胸의 발생 및 胸膜의 비후로 인해 胸膜剥皮術을 필요로 하였다. 그중 2명에선 각각 폐농양과 악성 폐종양이 합병되어 肺切除를 병행하였다.

156명의 성인환자에선 7명(4%)에서 反復穿刺를 하여 6명이 호전되었고 150명에서 閉鎖式 胸管挿管術을 시행하여 그중 80례(51%)에서 호전되었으며 9명(5%)은 사망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호전되지 않았던 환자중 63명은 rib resectional drainage 또는 modified Eloesser procedure를 시행하였는데 31명(19%)에서 호전되거나 그 상태로 외래 추적중이고 32례에서는 胸膜穿皮術을 실시하였는데 25례(16%)에서 호전되었으나 8례(5%)에서는 폐가 확장되지 않아서 6명에서 modified Eloesser procedure를, 2명에선 胸廓成形術을, 1명에선 muscle flap closure를 시행하였다. 胸廓成形術을 시행한 3명중 1명은 술후 6년후에 氣管枝 胸膜瘻가 발생하여 staged pneumonectomy를 시행하였다(Fig. 1).

전체 환자를 분석해 보면 胸膜穿刺만으로 치유된 경

우가 10명(4.5%) 이었으며 閉鎖式 胸管挿管術로 호전된 경우가 116명(52.7%)으로 가장 많았고 胸膜剥皮術 또는 肺切除술로 호전된 경우가 28명(12.7%)으로서 약 70%의 환자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내(3주)에 치유되었으나 나머지 30%(성인 42%)에선 rib resectional drainage, modified Eloesser procedure 및 胸廓成形術을 시행하였다(Table 8).

술후 중증의 합병증이 19례에서 발생하는데 폐혈증이 9례, 급성 신부전 4례, 장폐쇄증이 4례, 호흡 부전 2례였다(Table 9). 치료도중 5명이 사망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신부전 2명, 폐혈증 2명, 호흡부전 1명이었다(Table 10).

IV. 考 案

膽胸이란 胸腔내에 농성액체가 저류된 상태로,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Weese 등³⁾은 胸水液의 비중이 1.018이상, 백혈구 수가 5000 cells /mm³이상, 단백치가 2.5g /dl 이상인 경우를 膽胸으로 정의하였으며 Vianna 등⁴⁾은 胸水液의 세균 배양이 양성이고 백혈구 수가 15000 cell /mm³이상, 단백치가 3g /dl 이상, pH가 7.0이하, glucose치가

Table 8. Treatment Modality of Empyema.

| Modality | Infant & Child | Adult | Total |
|----------------------|----------------|-----------|------------|
| Thoracentesis | 4(6.3%) | 6(3.8%) | 10(4.5%) |
| Closed Thoracostomy | 45(70.3%) | 71(45.5%) | 116(52.7%) |
| C.T. & Open Drainage | 8(12.5%) | 8(5.1%) | 16(7.3%) |
| C. Rib Resection D. | 3(4.7%) | 1(0.6%) | 4(2.6%) |
| Eloesser Flap | — | 37(23.7%) | 37(16.8%) |
| Decortication | 2(3.1%) | 25(16.0%) | 27(12.3%) |
| D. & Pulmonary R. | 2(3.1%) | 4(2.6%) | 6(2.7%) |
| Thoracoplasty | — | 2(1.3%) | 2(0.9%) |
| Staged Pneumonectomy | — | 1(0.6%) | 1(0.5%) |
| Muscle Flap C. | — | 1(0.6%) | 1(0.5%) |

Table 9. Complications.

| | Infant & Child | Adult | Total |
|---------------------------|----------------|----------|----------|
| Sepsis | 2 | 7 | 9 |
| Acute renal failure | — | 4 | 4 |
| Paralytic ileus | 3 | 1 | 4 |
| Respiratory insufficiency | — | 2 | 2 |
| | 5(7.8%) | 14(9.9%) | 19(8.6%) |

Table 10. Mortality and Cause of Death.

| | Infant & Child | Adult | Total |
|---------------------|----------------|---------|---------|
| Hospital death | 1(1.6%) | 4(2.5%) | 5(2.3%) |
| Acute renal failure | - | 2 | 2 |
| Sepsis | 1 | 1 | 2 |
| Respiratory failure | - | 1 | 1 |

40mg%이하이거나 LDH가 1000 u/L이상이며, 세균도 말 검사시 양성인 경우 등을 胸膜으로 정의하였다.

胸膜의 진행정도는 치료방법 결정 및 예후판정을 위해 중요한데 Juhn과 Saurebruch 등⁵⁾은 胸膜腔이 6개월이상, 腹口 등⁶⁾은 3개월이상 놓이 저류되고 있는 경우를 慢性胸膜으로 구분하였으나 American Thoracic Society(1962)⁷⁾에 의하면 胸膜에 의한 胸水液 및 胸膜의 변화에 따라 3기로 분류하고 있다. 급성기시, 胸水液의 검사 소견을 보면 胸水液의 粘度가 낮고 함유 세포수가 적으며 백혈구 수가 낮고, LDH 치가 낮으며 glucose 치가 정상이며 완전 排胸시 폐는 확장될 수 있을 정도의 胸膜 변화를 보이고, 이행시기엔, 胸水液 소견은 화농성 변화의 진행으로 다형핵 백혈구 수의 증가로 粘度가 높고 glucose 치가 떨어지고 LDH가 증가하며 胸膜 표피에 fibrin이 침착하여 limiting peel을 형성하여 폐의 확장을 방해, 고정시키고, 만성 기시는 胸水液의 침전율이 75%/24시간 이상이고, pH가 7.0이하, glucose 치가 40mg/dl이하이고 胸膜의 肥厚가 기질화 되면서 섬유아 세포와 미세혈관이 종식하는 시기로 보통 4~6주에 만성기로 이행한다.

우리나라에서 胸膜의 발생빈도는 정⁸⁾, 장⁹⁾, 김¹⁰⁾ 등의 보고에 의하면 년평균 22례에서 32례사이이고 본 교실에서의 이전의 보고도^{11,12)} 매년 32례 였으나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문화 경제 및 광범위 항생제의 개발 보급으로 폐염 및 결핵에 의한 胸膜이 현저하게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나 최근들어 식도경 등의 진단 수기, 수술증가에 따른 술후 합병증 및 흉부외상 등의 증가로 현저하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다.

연령분포를 보면 장⁹⁾, 오¹²⁾, 김¹³⁾ 등의 보고에서와 같이 성인에서 월등히 높았으며 성별의 차이는 유아에선 1:1, 소아에선 1.8:1, 성인군에선 4.9:1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남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남자의 경우 식도손상 및 흉부외상의 빈발, 폐결핵의 이환율이 높은 것 등과 관계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좌우 胸膜의 발생빈도를 보면 장⁹⁾, 김¹⁰⁾, 유¹⁴⁾ 등에서와 같이 우측에서 2배정도 높았는데 그 이유는 생리해부학적 차이 및 우측폐에서 폐농양등 감염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胸膜의 원인은 과거 황¹⁵⁾은 폐염 22%, 폐농양 9.7%, 폐디스토마 4.2%, 오¹²⁾는 폐염 43.1%, 폐결핵 29.5%, 폐디스토마 15.7%로 보고하였고, 저자들은 폐염 32.2%, 폐결핵 22.7%, 외상 후유증에 의한 것이 8.6%였으며 개흉후 합병증에 의한 胸膜은 7례(3.2%)로 비슷한 소견을 보였다. 소아의 경우는 공히 폐염이 매우 높았으며 성인의 경우에서 폐결핵에 의한 胸膜은 구미에서는 회소한 것으로 보고¹⁶⁾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¹⁴⁾는 60%, 이¹⁷⁾는 36.7%를 보고한 반면 본 저자들은 27.6%로 가장 높았으나 이전의 보고¹²⁾ 39.7% 보다는 낮았다. 이는 아직도 국내에서 폐결핵 환자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나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臨床증상은 화농성 胸膜은 기침, 발열 및 호흡곤란 등을 주로 호소하였으나 결핵성인 경우엔 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폐실질 파괴, 胸膜의 섬유화에 따른 흉벽 및 횡격막 장애에 의한 폐기능의 저하로 생각된다.

원인균으로는 유소아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균이 포도상 구균이라는 보고가 있고^{13,18,19)} 저자의 경우에서도 53%로 가장 많았으며, 연쇄상 구균은 이전에 25.5%로 보고한 반면¹²⁾ 본 조사에서는 단지 6%에 불과했다. 성인에서도 포도상 구균이 많았으나 녹농균을 비롯한 그람 음성균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항생제 남용에 의한 내성의 증가와 2차 감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김¹⁰⁾ 등은 세균배양검사에서 균 음성이 59례중 37례를 보고하고 있고 저자들의 경우도 25%에서는 원인균을 검출할 수 없었는데 이는 혈기성 세균 배양의 실패, 검사를 채취의 잘못, 진균이나 결핵균 배양 실패 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농흉 치료의 근간은 기저질환의 제거, 감염의 조절, 排胸, 胸膜腔의 멸균, 死腔의 제거 및 잔류폐의 팽창이나²⁰⁾ 농흉의 진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急性胸膜에서는 적절한 항생제 투여와 胸膜穿刺 및 封閉式胸管挿管術에 의한 排胸으로 대부분이 치유되나 慢性胸膜에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死腔의 크기, 폐실질의 변화 상태, 氣管枝 胸膜瘻 유무에 따라 치료 방법의 선택을 달리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소아의 경우에서

포도상 구균에 의한 胸膜은 대부분 항생제 투여와 閉鎖式 胸管挿管術로 치유되고 胸膜剥皮術을 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H. influenza, β -hemolytic streptococci, anaerobes 등에 의한 胸膜은 포도상 구균에 의한 胸膜과는 달리 일반적인 局限性 脓液 저류 및 두꺼운 섬유성 peel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소아에서도 적용증이 되는 경우에는 조기 胸膜剥皮術을 주장하고 있다^{21,22)}. 결핵성 胸膜炎은 폐결핵 감염 3~7개월 후에 발생빈도가 높고 발생기전은 胸腔내로 胸膜하 결핵병변의 파열이나 침습된 폐문부 임파선으로부터 균의 파급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결핵균과 세균의 혼합감염에 의한 胸膜으로의 이행은 반복적인 胸膜穿刺 및 胸管挿管에 의한 오염, 공동성 결핵이 胸腔내 파열,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氣管枝 胸膜瘻가 발생하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다.

저자의 경우에는 결핵에 의한 胸膜 50례 중 2례는 胸膜穿刺에 의해, 21례는 閉鎖式 胸管挿管術에 의해 치료하였으며 胸膜剥皮術은 14례에서, 11례는 modified Eloesser procedure를, 2례에서는 胸廓成形術을 시행하였다. 胸廓成形術은 우측 2번부터 8번까지의 늑골을 절제하고 筋成形術을 시행하였는데 1명의 환자에서 6년 후 우측 폐 하엽의 결핵성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氣管枝 胸膜瘻가 발생하여 정중흉골절개하에 심막을 열고 상대정맥과 대동맥 사이에서 우측 폐동맥을 박리 절단하고 우측 주 기관지를 자르고 4-0 silk로 통합하였다. 우상 폐정맥과 우하 폐정맥을 심막내외에서 박리 결찰한 뒤 1차 수술을 끝내고, 1개월 뒤 우측을 개흉하여 잔폐 및 胸膜을 제거하였다^{23,24)}. 환자는 현저한 증상의 개선과 함께 별탈없이 호전 퇴원하였다.*

肺切除 후 병발하는 胸膜은 肺切除 적응 및 범위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全肺切除术后엔 2~13%, 胸膜 후 全肺切除술을 시행시 계속적인 胸腔내 감염의 잔존은 45%정도²⁵⁾로 보고되고 있다. 발병시기는 술후 초기이며 원인으로는 수술시 오염 및 기관지 胸膜瘻나 식도 胸膜瘻의 발생과 혈행성 감염에 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는 역시 잔폐의 확장 여부라 하겠다. 치료 원칙은 먼저 항생제 투여와 閉鎖式 胸腔排膿術을 시행하고 BPF가 없고 전신상태가 안정되면 死腔을 열고 한 뒤 muscle flap을 시행하며, 전신상태가 불량하면 modified Eloesser procedure를 시행한다. BPF가 있

는 경우엔 전신 상태가 양호하면 myoplasty나 omentopexy를 시행하고 불량할 경우엔 역시 modified Eloesser procedure를 실시한다.

저자의 경우에서는 肺切除 후 발생한 농흉 7례 중 5례에서는 modified Eloesser procedure를 시행하였고 1례에서는 胸廓成形術을 하였으며 muscle flap procedure를 1례 시행하였다. Muscle flap procedure를 시행한 환자에서는 좌폐하엽의 기관지 확장증으로 左肺下葉切除술을 받은 환자로서 지속적인 死腔이 남아 있어 광배근을 이용하여 死腔을 없애 주었다. 먼저 척추에서 장골까지의 근육부착부위를 박리 절단하고 좌측 6번재의 늑골을 자르고 死腔을 채웠다. 술후 환자는 흉부기형이나 胸膜의 재발생 없이 호전되었다. 이 논문 분석기간 이후 본 교실에서는 modified Sawamura thoracoplasty²⁶⁾ 및 omentopexy²⁷⁾ 등도 시행하고 있다.

VI. 結論

본 전남대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79년 1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220명의 胸膜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그 臨床자료를 분석한 소견은 다음과 같다.

- 1) 1세 이하의 영유아는 10%(22명), 1세에서 15세 사이의 소아는 19.1%(42명), 15세 이상의 성인환자는 70.9%(156명)이었다.
- 2) 남녀비는 전체환자에서 3.2 : 1(남 167명, 여 53명)이었다. 영유아에서는 1 : 1, 소아에서는 1.8 : 1 이었고 성인에서는 4.8 : 1로 나이가 증가하면서 남자환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 3)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24.5%)이 가장 많았고, 흉통(21.8%), 발열 및 오한(20.9%), 기침 순이었다.
- 4) 좌우 胸膜의 비는 1.9 : 1(143 : 73)이었다.
- 5) 胸膜의 원인 질환은 폐염이 30.9%(68명)로 가장 많았고 폐결핵 22.7%(50명), 흉부손상 8.6%(19명)의 순이었다.
- 6) 원인균은 staphylococcus가 26.4%(58명)로 가장 많았고 pseudomonas 11.8%(26명), streptococcus 9%(20명) 순이었으며, 원인균을 규명할 수 없었던 경우는 25%(55례)였다.
- 7) 모든 환자에서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tho-

racentesis 10례, closed thoracostomy 132례, closed rib resection drainage 4례, modified Eloesser's operation 37례, decortication 27례, decortication with pulmonary resection 1례, thoracoplasty 2례, muscle flap closure 1례 및 staged pneumonectomy 1례였다.

8) 사망률은 2.3%(5명)였고, 흉부의 합병증으로는 폐혈증 9례, 급성 신부전 4례, 마비성 장폐쇄증이 3례였다.

REFERENCES

1. Roegers, D. E. : *The current problem of staphylococcal infection.* Ann. Int. Med. 47 : 748, 1956
2. John, H.L., Mark, J.B. : *Modern management of adult thoracic empyema.* J. Thorac. Cardiovasc. Surg. 90 : 849-855, 1985
3. Weese, W.C. et al : *Empyema of the thorax then and now.* Arch. Intern. Med. 131 : 516, 1973
4. Vianna, N.J. : *Nontuberculous bacterial empyema in patients with and without underlying diseases.* J.A.M.A. 215 : 69, 1971
5. Jehn, W. and Sauerbruch, F. : cited Spath F. : *Handbuch der Thorax Chirurgie, Band 2,* pp91-190, Springer, Berlin.
6. 關口一雄 : 膈胸, 胸部外科叢書, 14 : 291, 南江堂, 東京, 1955
7. American Thoracic Society ; *Management of non-tuberculous empyema.* Am. Rev. Respir. Dis. 85 : 935, 1962
8. 정 수상, 성 시찬, 조 성래, 조 성광 : 농흉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제13권 제1호, 1980
9. 장 정수, 이 종국 : 농흉의 임상적 고찰,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제12권 제4호, 1979
10. 김 현순, 김 용진, 김 영태, 서 경필 : 농흉의 임상적 고찰,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제15권 제3호, 1982
11. 이 동준 : 농흉의 임상적 고찰,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제7권 제1호, 1974
12. 오 봉석, 최 종범, 이 동준 : 농흉의 임상적 고찰,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제13권 제4호, 1980
13. 김 치경, 박 건, 김 경우, 조 전형, 왕 영필, 곽 문 섭, 김 세화, 이 홍균 : 농흉의 외과적 치료,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제20권 제1호, 1987
14. 유 회성 외 : 농흉의 임상적 고찰,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제4권 제2호, 1971
15. 황 의호, 이 세순, 최 원철, 홍 필훈 : 비 결핵성 농흉 72례.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제6권, 제3호, 1964
16. Sinder, G.L. and Saleh, S.S. : *Dis. chest* 54 : 410, 1968
17. 이 인성, 김 형목 : 농흉의 임상적 고찰(제1보).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제10권 제2호, 1977
18. Mayo, P. and Melvin, R.B. : *Early thoracotomy for pyogenic empyema.* J. Thorac. Cardiovasc. Surg. 47 : 165, 1964
19. Jewett, T.C. : *Staphylococcal empyema in children.* Ann. Surg. 153 : 447, 1963
20. Cohn, L.H., and Blaisdell, E.W. : *Surgical treatment of nontuberculous empyema.* Arch. Surg. 100 : 376, 1970
21. Foglia, R.P., Randolph, J. : *Current indications for decortication in treatment of empyema in children.* Pediatr. Surg. 22 : 28-33, 1987
22. Gustafson, R.A., Murray, G.F., Warden, H.E., Hill, R.C. : *Role of lung decortication in symptomatic empyema in children.* Ann. Thorac. Surg. 49 : 940-947, 1990
23. Perelman, M.E., Rymko, L.P. and Ambatiell, G.P. : *Bronchopleural fistula : Surgery after pneumonectomy.* In *International Trends in General Thoracic Surgery, Vol 2, Major Challenger.* Edited by HC Grillo and H Eschapasse.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87, p.407
24. McGovern, E.M. et al : *Completion pneumonectomy : Indications, Complications and results.* Ann. Thorac. Surg. 46 : 141, 1988
25. LeRoux, B.T. et al : *Suppurative disease of the lung and pleural space. Part 1 Empyema thoracis and lung abscess.* Curr. Probl. Surg. 23 : 6, 1986
26. Iioka, S. et al : *Surgical treatment of chronic empyema : a new one-stage operation.* J. Thorac. Cardiovasc. Surg. 90 : 179, 1985
27. Dubois, P., Choiniere, L. and Cooper, J.D. : *Bronchial omentopexy in canine lung allotransplantation.* Ann. Thorac. Surg. 38 : 211, 1984